<h1>나 혼자만 레벨업-65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wf98347fc6c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5화</p>  
<p>돌아가는 길.</p>  
<p>부르릉-</p>  
<p>달리는 차 속에서 진우는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.</p>  
<p>'쩝...'</p>  
<p>추출 대상과 자신의 능력치 격차가 너무 커서일까?</p>  
<p>안타깝게도 그림자 추출 스킬은 실패하고 말았다.</p>  
<p>'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.'</p>  
<p>상급 던전의 보스는 언제라도 잡을 수 있다.</p>  
<p>중요한 건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능력치 차이를 줄여 놓는 것이었다.</p>  
<p>레벨업.</p>  
<p>그건 진우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.</p>  
<p>그리고.</p>  
<p>잠시 운전대에서 떨어진 진우의 왼손에 유려한 곡선의 단검 하나가 나타났다.</p>  
<p>[아이템: 바루카의 단도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단검</p>  
<p>대전사 '바루카'가 사용했던 단도입니다. 경량화 마법이 걸려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다 민첩하게 만들어 줍니다.</p>  
<p>공격력 +110</p>  
<p>민첩 +10</p>  
<p>아예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다.</p>  
<p>보스가 쓰던 단검.</p>  
<p>부서진 하나는 버리고, 나머지 하나를 챙겼다.</p>  
<p>'바루카의 단도.'</p>  
<p>높은 자체 공격력에 추가 민첩 스탯까지.</p>  
<p>C급인 '카사카의 독니'는 말할 것도 없고, 거금을 주고 마련한 B급 '나이트 킬러'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단검이었다.</p>  
<p>무려 입수 난이도 A급!</p>  
<p>점점 힘이 빠져 가는 '카사카의 독니'를 대체할 최고의 무기였다.</p>  
<p>'그립감도 좋고.'</p>  
<p>레드 게이트에서의 일을 되짚어보는 사이 금방 한송이의 집 근처까지 도착했다.</p>  
<p>끼익.</p>  
<p>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앉아있던 한송이가 보조석에서 내려서 꾸벅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조심히 가세요."</p>  
<p>"그래."</p>  
<p>돌아서는 한송이.</p>  
<p>축 처진 어깨와 힘없는 걸음걸이를 보고 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싶었다.</p>  
<p>'일이 좀 꼬여서 그렇지 애초에 한송이를 설득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으니까.'</p>  
<p>앞으로 한송이가 헌터가 된다고 나설 일은 없어 보였다.</p>  
<p>처음 들어가 본 던전이 하필 레드 게이트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.</p>  
<p>일단은 거기에 만족하고 차를 출발시키려는데, 갑자기 보조석 문이 벌컥 열렸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진우가 돌아보았다.</p>  
<p>되돌아온 한송이가 문을 잡고 서 있었다.</p>  
<p>'얘가 왜 이러지?'</p>  
<p>궁금증도 잠시.</p>  
<p>한송이가 다시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오늘 감사했습니다, 오빠."</p>  
<p>그러고 보니 언제쯤인가부터 호칭이 '아저씨'에서 '오빠'로 바뀌어 있었다.</p>  
<p>"어, 그래."</p>  
<p>"저..."</p>  
<p>"음?"</p>  
<p>"내일, 아니 이따 봬요."</p>  
<p>이따?</p>  
<p>뜻을 묻기도 전에 한송이는 후다닥 뛰어 올라가 버렸다.</p>  
<p>한송이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뒤늦게 생각이 났다.</p>  
<p>'아하.'</p>  
<p>오늘부터는 또 유진호와 남은 레이드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. 팀원인 한송이와는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'그 얘기였군.'</p>  
<p>그래도 다행이었다.</p>  
<p>이번 일로 한송이가 아예 집에 틀어박혀 버렸으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는데.</p>  
<p>'잘됐다.'</p>  
<p>이제 그림자 병사들을 이용해서 한층 더 빠르게 C급 던전들을 클리어할 수 있었다.</p>  
<p>남은 레이드를 최단기간에 끝낼 자신이 있었다.</p>  
<p>거기에 더해 곧 병사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될 유진호의 반응 또한 기대됐다.</p>  
<p>'윤기중이라는 사람 리액션은 정말 일품이었지.'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으며 천천히 핸들을 움직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다음 날 아침.</p>  
<p>"하암-"</p>  
<p>진우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내려왔다.</p>  
<p>눈을 붙이자마자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어 있었다.</p>  
<p>"형님, 좋은 아침입니다!"</p>  
<p>활기찬 목소리.</p>  
<p>유진호가 먼저와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"차도 없는 녀석이, 뭐 타고 왔어?"</p>  
<p>레이드 팀의 애마 '봉고'는 진우가 전날 끌고 갔다 근처의 주차장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다.</p>  
<p>"택시 타고 왔습니다, 형님."</p>  
<p>"아, 택시."</p>  
<p>오늘은 입장을 바꿔 이쪽에서 한번 데리러 갈까 했더니.</p>  
<p>"괜찮습니다. 형님. 제가 도움받는 입장인데요.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."</p>  
<p>유진호가 실실 웃으며 마다했다.</p>  
<p>평소와 다름 없는 아침이었다.</p>  
<p>그러던 중.</p>  
<p>"엇?"</p>  
<p>유진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. 진우 손에 들린 긴 원통형의 무언가.</p>  
<p>유진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.</p>  
<p>"형님, 그게 뭡니까?"</p>  
<p>"아, 이거?"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"오늘 던전에서 쓸 거."</p>  
<p>헉.</p>  
<p>순간 유진호의 간담이 서늘해졌다.</p>  
<p>'던전에서 쓸 무기신가?'</p>  
<p>보통 때도 남다른 모습만을 보여주는 형님이신데, 이번엔 또 얼마나 흉악한 무기를 들고 오신 걸까.</p>  
<p>벌써부터 긴장되기 시작했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마른침을 삼킨 유진호가 겨우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형님, 가시죠."</p>  
<p>"잠깐만."</p>  
<p>진우가 손을 들더니 이내 다이얼을 눌렀다.</p>  
<p>"한 명 같이 데려가자."</p>  
<p>"네? 누구를?"</p>  
<p>"어. 송이야. 나와, 게이트까지 태워 줄게."</p>  
<p>송이... 송이라면?</p>  
<p>진우가 전화를 끊자마자 유진호가 물었다.</p>  
<p>"형님, 설마 데려가자는 사람이 우리 팀의 그 고딩입니까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어차피 한송이 집도 요 근처고 목적지도 같은데 따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유진호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.</p>  
<p>한송이.</p>  
<p>머리를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다니는 귀염상의 여고생.</p>  
<p>'그 애 번호도 알고 계시고 친근하게 대화까지... 형님과 그 여자애는 벌써 깊은 관계이신 걸까?'</p>  
<p>확실히 형님은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.</p>  
<p>'특히 단검 하나 들고 거대한 마수들을 요리하실 때는 정말...'</p>  
<p>형님이야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 여학생이 형님께 반하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만약 그렇게 된 거라면 정해 놔야 할 문제가 있었다.</p>  
<p>"형님. 이제부터 한송이 양을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까?"</p>  
<p>이 자식이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딱 그랬다.</p>  
<p>아무리 눈치 없는 유진호라도 그 정도는 알아챌 수 있었다.</p>  
<p>"어... 두 분 사귀시는 거 아니셨습니까?"</p>  
<p>"그냥 동생 친구."</p>  
<p>"아, 아아."</p>  
<p>그렇게 된 거였구나.</p>  
<p>유진호는 겨우 상황을 이해했다.</p>  
<p>그것도 모르고 뜬금없이 형수님이라고 불렀으니.</p>  
<p>낯이 다 화끈거렸다.</p>  
<p>곧 한송이가 나왔다.</p>  
<p>평소 레이드 할 때보다 한껏 차려입고서.</p>  
<p>유진호가 씩 웃었다.</p>  
<p>'친구 오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10대 소녀답구나.'</p>  
<p>공대장답게 모처럼 신경 써서 나온 공대장의 복장을 칭찬해 주려는데, 진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.</p>  
<p>"잠은 좀 잤어?"</p>  
<p>일순간 유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.</p>  
<p>'...'</p>  
<p>한송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한숨도 못 잤어요."</p>  
<p>"피곤할 텐데 차에서라도 좀 쉬어."</p>  
<p>두 사람의 대화에 유진호의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다.</p>  
<p>'어, 어어?'</p>  
<p>이번엔 한송이가 진우에게 물었다.</p>  
<p>"오빠는 좀 주무셨어요?"</p>  
<p>"눈만 붙이고 나왔지, 뭐. 집에 들어가니까 4시가 넘었던걸."</p>  
<p>"하긴..."</p>  
<p>밤? 한숨도? 피곤? 집에 들어가니 4시?</p>  
<p>유진호가 당황을 넘어 경악을 느끼고 있을 때, 봉고로 향하던 진우가 유진호를 뒤돌아보았다.</p>  
<p>"유진호, 뭐해?"</p>  
<p>"저... 그, 형님?"</p>  
<p>"...?"</p>  
<p>"저기, 한송이 양은 미성년자입니다, 형님."</p>  
<p>"그런데?"</p>  
<p>"...아닙니다, 형님."</p>  
<p>역시 형님은 상남자시다.</p>  
<p>유진호는 세간의 이목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진우의 거침없음에 감탄하면서.</p>  
<p>'역시 보통이 아니셔.'</p>  
<p>일반인의 기준으로 형님에게 잣대를 들이댄 자신을 깊이 반성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같은 시각.</p>  
<p>백호 길드의 소회의실.</p>  
<p>"제가 본 건 거기까지입니다."</p>  
<p>박희진이 말을 맺었다.</p>  
<p>그녀는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백윤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사에 응했다.</p>  
<p>자신은 거기서 비교적 편하게(?) 있었다면서.</p>  
<p>"..."</p>  
<p>"..."</p>  
<p>조사를 진행한 상급자 두 사람, 사장 백윤호와 가장 안상민은 할말을 잃었다.</p>  
<p>담당자인 현기철은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 협회에 간 상태였다.</p>  
<p>그래서 회의장에는 세 사람이 전부였다.</p>  
<p>안상민이 정적을 깼다.</p>  
<p>"그게 전부 사실입니까?"</p>  
<p>"고명환, 윤기중 두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. 아마 똑같이 말해 줄 거예요."</p>  
<p>가족이 보고 싶다며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.</p>  
<p>박희진은 그 두 사람의 증언과 자신의 증언이 다르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었다.</p>  
<p>'내가 직접 겪은 일들만 설명했으니까.'</p>  
<p>그 남자가 없을 때 먼 숲에서 간간이 아이스 베어들의 비명이 들려왔다거나, 남들 다 자는 사이 일어난 그 남자가 혼자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었다거나.</p>  
<p>자신 외의 멤버들이 보고 들은 일은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았다.</p>  
<p>"허..."</p>  
<p>안상민은 신음인지 침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.</p>  
<p>A급 헌터를 한방에 기절시키고, 아공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, 수십의 소환수를 다룰 수 있다.</p>  
<p>온통 믿기 힘든 이야기들뿐이었다.</p>  
<p>무엇보다 놀라운 점은.</p>  
<p>"상급 던전을 거의 혼자서 클리어했다는 것."</p>  
<p>침묵을 지키고 있던 백윤호의 한마디.</p>  
<p>S급이기에 말할 수 있었다.</p>  
<p>"그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."</p>  
<p>소환수들과 같이 싸웠다지만 소환수들은 동료가 아니라 성진우 헌터의 스킬.</p>  
<p>결국 성진우 혼자 던전을 클리어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.</p>  
<p>"아무리 높은 랭크의 헌터라도 상급 던전을 혼자 힘으로 공략하기는 힘듭니다."</p>  
<p>그것도 무려 레드 게이트를.</p>  
<p>자신이 나선다면?</p>  
<p>B급 레드 게이트 정도나 간신히 클리어할 수 있을까?</p>  
<p>하나가 아닌 다수의 소환수를 다룰 수 있는 성진우 헌터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이 놀랍다는 듯 말했다.</p>  
<p>"그가 희귀 능력 각성자임은 틀림없군요."</p>  
<p>백윤호도 동의했다.</p>  
<p>"소환수를 부리는 헌터 자체도 드물지만, 다수의 소환수를 부릴 수 있는 헌터라니..."</p>  
<p>S급 헌터로 활동하며 수많은 헌터를 만나고, 그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들어 본 적 없었다.</p>  
<p>"일반적인 희귀 능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희귀 능력 각성자..."</p>  
<p>백윤호가 감탄했다.</p>  
<p>문득 떠오른 안상민의 질문.</p>  
<p>"성진우 씨의 능력을 몸값으로 환산하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?"</p>  
<p>"..."</p>  
<p>백윤호도 선뜻 답을 낼 수가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, 현재 성진우의 몸값을 얼마로 산정하든 등급 재심사가 끝나는 순간 그 몇 배로 뛴다는 것.</p>  
<p>그렇게 되기 전에 잡아야 한다.</p>  
<p>이미 백호 길드는 A급 헌터 하나와 B급 헌터 다수를 잃었다.</p>  
<p>여기서 성진우라는 보장된 카드를 붙잡지 못한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"안 과장님만 믿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가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안상민이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"음?"</p>  
<p>백윤호와 안상민의 시선이 동시에 박희진에게 향했다.</p>  
<p>박희진이 손을 들고 있었다.</p>  
<p>백윤호가 물었다.</p>  
<p>"뭔가 질문하실 거라도 있습니까?"</p>  
<p>두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데 성공한 박희진이 손을 내리며 말했다.</p>  
<p>"저도 돕게 해주세요."</p>  
<p>"뭐를요?"</p>  
<p>"공대장님, 아니 성진우 헌터님의 영입요."</p>  
<p>백윤호와 안상민이 잠깐 서로를 마주 보다가 다시 박희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영입 담당자인 안상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박희진 헌터님이 왜...?"</p>  
<p>"제가 백호 길드의 누구보다도 성진우 헌터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아서요."</p>  
<p>현실에서의 6시간.</p>  
<p>레드 게이트 안에서는 거의 일주일이었다.</p>  
<p>박희진의 제안은 백윤호나 안상민이 듣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렸다.</p>  
<p>거기다 박희진은 미인.</p>  
<p>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외모의 힘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.</p>  
<p>사장과 과장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박희진이 드디어 본론을 얘기했다.</p>  
<p>"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가 물었다.</p>  
<p>"뭡니까?"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이 백호 길드에 들어오면 저를 무조건 그분 공격대에 넣어 주세요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